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1.11.19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英, 리버풀 택시 폭탄테러 용의자 4명 검거

- 11.15 英 경찰은 리버풀 대성당 인근 여성병원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대상으로 폭탄 공격(사망 1)을 자행한 용의자 남성 4명을 「테러방지법」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
- \* 한편, 英 정부는 유사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테러경보를 '상당'에서 '심각'으로 격상

#### 미주

##### ○ 美軍, '19년도 시리아 공습시 민간인 사망 은폐

- 11.14 NYT는 지난 '19.3.18 美軍이 ISIS 최후의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즈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이 최대 64명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, 조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
- \* 美軍은 NYT 질의에 당시 80명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'사망자 중 ISIS 16명·민간인은 4명이나, 나머지 60명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다'며 구체 언급 회피

##### ○ 美 LA카운티,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4배 증가

- 11.15 美 LA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는 '20년 LA카운티에서 인종차별에 기인한 증오범죄가 403건으로 '19년 대비 53% 증가, 특히, 아·태계 주민 대상 범죄는 '20년 22건으로 '19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
- \* 전체 증오범죄는 635건으로 '08년 이후 최고 수치 기록

##### ○ 美, 3D프린터 제작 '유령총\*'으로 인한 총기범죄 급증

- 11.15 NYT는 온라인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조립한 이른바 '유령총'(Ghost Gun) 확산 문제를 거론하며, 특히, 3D프린터의 폭넓은 가용성이 미국내 총기범죄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
- \*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범죄 악용 시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 불가

## 아 · 태평양

- 언론·전문가, ISIS-K 테러·빈곤 등으로 아프간인 '최악의 겨울' 예상
  - 11.11 BBC·WSJ 등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再집권 후 ISIS-K(호라산 지부)의 테러 급증, 치안공백, 경제·에너지난 등으로 이번 겨울이 현지인들에게는 '지옥이 될 것'이라고 우려
    - \* ISIS-K는 지난 9.18~10.28까지 아프간에서 자살폭탄 테러·암살 등 최소 54건의 공격 감행
- 미얀마 군부, '테러·선동 혐의'로 미국 언론인 기소
  - 11.13 미얀마 군부는 허위 정보 배포, 불법단체 접촉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「대니 펜스터」(男, 37세)를 '테러·선동 혐의'로 추가 기소
    - \* 「대니 펜스터」는 미얀마 군부 관련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수감
- 탈레반, 군사 퍼레이드 개최로 '정규군' 출범 의지 표출
  - 11.14 외신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신병 250명의 훈련 수료를 기념하는 의미로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으며, 이는 同단체가 반군에서 정규군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
    - \* 특히, 이번 열병식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함으로써 미군이 아프간 철수 후 남기고 간 무기들이 본인들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

## 아프리카

- 우간다, 수도 캄팔라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39명 사상
  - 11.16 우간다 수도 캄팔라市 중심부에 소재한 경찰서 및 의회 건물 주변 도로에서 두 차례 연쇄 폭발이 발생, 테러범 3명 포함 최소 6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
    - \* 현지 경찰은 이번 공격 주체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민주군사동맹(ADF)으로 추정된다고 하며, 자살 폭탄 테러 위협이 아직 남아있다고 발표

이집트 시나이 반도 모스크 무차별 총격테러

- '17.11.24, 이집트 北시나이주 '알 라우다' 마을에서 15~20명 가량의 무장 괴한들이 폭탄을 탑재한 SUV차량 4대에 분승해 모스크를 포위 후 무차별 총격을 자행, 337명 사망·122명 부상
  - \* 해당 마을은 '앗 사와라카' 부족 밀집 지역이며 시나이 반도 수피 종단의 주요 근거지로 사건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중시하는 '무함마드' 탄신 기념일 1주일 전에 발생
- 同 테러사건과 관련해, 이집트 정부는 3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하였으며, 「압델 파사 엘시시」 대통령은 “반드시 응징하겠다”고 천명하는 한편, 피해자 및 가족 보상기금 마련을 지시
- 한편, 이집트 「알 아흐람」 정치전략 연구소는 이번 피해 수준이 정세불안 국가인 시리아·이라크·아프가니스탄·소말리아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와 유사하다며, 아래와 같은 4가지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

< 시나이 반도 모스크 총격테러 분석 결과 >

- ▷ 사건 주체는 ISIS-시나이 지부(ISIS-SP)로 同 사건을 통해 존재감 과시 및 조직 홍보
- ▷ 모스크를 공격한 것으로 미루어, ISIS-SP의 공격 목표와 전술이 변화했음을 시사
- ▷ 정부군의 대테러작전 확대에 테러조직의 주활동 지역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
- ▷ 피해자 대부분이 '앗 사와라카' 부족원들로 이들의 보복행위 가능성 대비 필요

< ISIS-시나이 지부(ISIS-SP) >

- (목표) 이집트내 군부 축출 및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  - \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14.4), 영국('14.4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부 하자르 알 하웨미」 ('18.11 선임)
- (결성·규모) '11년 '아랍의 봄' 계기, 팔레스타인에서 유입된 지하디스트(150여명)와 시나이반도내 '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' 조직원(600명) 중심으로 결성, 1,000여명 활동 추정
- (연계세력) ISIS
- (주요테러) '14.2 이스라엘 접경 시나이반도 '타바' 아국인 성지순례객 탑승버스 자폭 테러(우리국민 3명 및 이집트인 기사 사망, 15명 부상)
  - '15.8 이집트 카이로市 국가보안부 청사 차량폭탄테러(29명 부상)
  - '19.6 시나이 반도 북부 아리쉬 지역 軍 검문소 공격(軍·警 8명 사망)